칼 럼

갑질도 을질도 문제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역사에 선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비우면서 살았다. 술잔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세상사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비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물론 말로는 비운다고 한다. 푸진 소리들도 한다. 엄청난 돈을 벌어 기부하고 주변인들을 대접하면서 자신은 손해본듯하며 삶을 영위한다고도 한다. 그런데 정작 부딪쳐보면 그렇지가 않다.

과연 언제, 누구에게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다. 오히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정상적인 음식값도 깎는다. 직원들의 복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급여도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상적으로 줘야할 수당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닦달한다.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잘하는 직원도 내키지 않으면 역시 해고다.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갑의 횡포다. 만용이다.

하지만 특수직에서까지 갑질을 하면 곤란하다. 유능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글을 쓰는 분야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글을 잘 쓸 수는 없다. 박학다식하다고 해서 잘 쓰는 것도 아니다. 구슬이 세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그렇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견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잘 꿰어야 한다. 잘 꿸수록 구슬은 빛난다. 그러지 않으면 쓰레기만도 못하다.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갑질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런 갑한테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체로 그 주변인들 역시 평생 빌붙어 살 쓰레기들인 경우가 많다. 보신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갑의 횡포는 더 심해지고 을은 더더욱 초라해지는 것이다. 참으로 구역질나는 참상만 전개될 뿐이다. 그렇게 쓰레기들의 행진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갑도, 을도 비우지 않기 때문이다. 갑은 욕심을 비우고, 을은 비열함을 비워야 하는데도, 피차간에 배려와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계도, 관계도, 재계도, 문화계도,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겉모습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엄청나게 변했어도 그 내면의 세계는 역시다.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 졌던 경전이 오늘날에도 역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고, 불경이 그렇다. 사상가들의 글들이 그렇다. 에니어그램 등 성격풀이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근본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업보라 할 수 있는 욕심보 때문일 것이다. 자자, 이제 좀 변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부터 구조조정해야 하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인류생성 시부터 형성된 업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신이 아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세상을 보드랍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기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라. 제자가 되기 위해 어부 베드로는 생계수단인 그물을 던져 버렸다. 야고보나 요한은 자신들의 울타리인 아버지와 삯꾼들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예수에 대한 배신도 거듭했다.

하지만 근본만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말이다. '갑'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여! 추악한 욕심보를 버려라. '을'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여! 비열한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 그것이 곧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손가락 등 절단사고(수부손상) 시 대처요령

날씨가 선선해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이 시작되면서 콤바인, 기계톱, 예초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상이 바로 손가락을 비롯한 손목을 총칭하는 수부손상이다.

손가락이나 손목이 절단되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상된 수부의 기능을 되돌리기 위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농기계에 의한 손상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탈수기나 믹서기 등을 사용하다가 손가락 손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잦다. 특히 뼈와 살이 연한 영유아의 손가락 손상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만약 우리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어떤 응급처치를 해주어야 할까? 우선 절단된 부위의 과다한 출혈을 막는 것이 먼저이다. 출혈부위는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는데 너무 과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혈한 절단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준다.

이때 지혈을 위해 철사나 끈으로 동여매는 것은 피부조직과 신경, 혈관 등을 파괴해 수술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손가락의 완전 절단 시에는 먼저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씻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소독된 거즈 또는 깨끗한 천에 생리식염수를 적셔 절단된 손가락을 싸서 절단된 손가락면의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젖은 거즈로 싼 손가락을 좀 더 크고 깨끗한 타월로 둘러 비닐봉지에 넣고 고무줄로 밀봉한 뒤 얼음과 물을 1대 1로 섞은 얼음상자에 넣어 차갑게 보관하여 병원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때 절단부위가 마르거나 얼면 조직이 손상되어 접합 성공률이 떨어지므로 얼음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부의 부분절단 시에는 부분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씻어주며 소독된 압박붕대로 절단된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감싼 후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손상부위를 차갑게 유지시킨다.

이때도 손상된 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상온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이내, 4도이하의 저온에서 보관 시 최대 24시간까지 접합이 가능하므로 장거리 이동시에는 섭씨 4도의 냉장보관이 좋다. 그리고 절단사고 시에는 작은 조직 하나라도 접합수술에 도움이 되므로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절단부위나 조직을 모두 수거하도록 한다. 또한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생리식염수가 아닌 알코올이나 기타 소독약에 절단부위를 담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절단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누군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동안 다른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민호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社 說

부끄러운 국가공무원 범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공직자들의 비리가 날로 늘고 있다니 보통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4년 새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우려스럽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니 더더욱 걱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천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251명, 2015년 2천733명, 2016년 3천613명 등 4년 새 1천67명(47.4%)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별 공무원 범죄 비율은 대검찰청이 9.6%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 8.4%, 국무총리실 6.4%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국민 범죄 발생률 3.3%보다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 791명, 폭력 500명, 강력범죄 100명, 절도 48명 순이었다. 2014~2017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만1천915명이다.

정부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천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범죄 발생률과 비교해 특정 부처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 특히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처별 특성에 맞게 도덕성을 높이는 자정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보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百	일백	백	百郡秦幷
郡	고을	군	
秦	성씨	진	▷뜻: 진시황(秦始皇)이 천하(天下)를 봉군(封郡)하는 법(法)을 폐(廢)하고 일백군(100郡)을 둠.
幷	아우를	병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